



(박주영)

“북 밀집수비 뚫겠다”

오늘밤 월드컵 최종예선 남북대결... 박주영-이근호 투톱 골사냥 특명

한국의 7회 연속 월드컵 축구 본선 진출에 최대 분수령이 될 남북대결에 이근호와 박주영(AS모나코)이 북한의 골문을 열 공격 쌍두마차로 나설 전망이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4월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북한 프리카공화국월드컵 아시아 예선 5차전 홈경기를 치른다.

과 2010 남아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5차전 홈경기를 치른다. 한국으로서는 최종예선 B조에서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에서 2승2무(승점 8)를 기록, 지난 28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전에서 승리한 북한(3승1무1패·승점 10)에 조 선두 자리를 내줘 6개월 만의 남북대결이 최종예선 통과에 최대 고비다.

허정무 감독은 30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15분만 훈련을 공개하고 나머지 시간은 취재진을 물린 채 담금질을 할 정도로 의욕을 보였다.

특히 지난 2007년 12월 허정무호 출범 후 북한과 네 경기 연속 승부를 가리지 못한 한국은 5경기 연속 무승부 행진 중이어서 안방에서 '무승부 징크스 탈출' 기대가 크다.

허 감독은 북한의 탄탄한 수비를 뚫으려고 지난 28일 이라크와 평가전에서 처음 콤비를 맞췄던 이근호-박주영 투톱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근호는 유럽 무대 진출을 타진에도 새 팀을 찾지 못해 실전 감각이 떨어져 있음에도 대표팀 간판 골잡이로서 허 감독의 변함 없는 신뢰를 확인했다. 허 감독은 이근호의 뛰어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려고 78분을 뛰게 했고 페널티 킥 키퍼로 내세워 자신감을 갖도록 배려했다.

오랜만에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출격한 박주영도 공격 기회를 만드는 한편 활발한 움직임으로 '받아먹는 선수' 이미지를 탈색하며 장신 스트라이커 정성훈(부산)에 경쟁 우위를 점했다.

좌우 윙포워드는 '캡틴' 박주영(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청용(서울)이 호흡을 맞춘다. 이라크전에서 폭발적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던 박지성은 북한과 외나무다리 대

결에서는 중앙과 왼쪽 날개를 휘저으며 분위기를 살릴 것으로 기대된다.

기성용의 짝으로 중앙 미드필더 공백을 메울 책임자는 '왼발 달인' 김치우(이상서울)·베테랑 미드필더 김정우(성남)가 경고 누적으로 북한전에 뛸 수 없어 대타로 발탁했던 조원희(위건)마저 종아리 타박상으로 출장이 어렵게 되자 허정무 감독은 빠른 돌파와 킥이 좋은 김치우를 사실상 낙점했다. 김치우는 전담 키퍼 중책을 맡은 기성용과 함께 세트피스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치우의 팀 동료인 한태유 역시 중앙미드필더 자리를 노리고 있다.

포백(4-back) 수비 라인은 이영표(도르트문트)-황재원(포항)-강민수(제주)-오범석(사마리) 조합을 그대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

13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한 중앙 수비수 황재원은 이라크전 때 자책골을 한낱하는 등 불안함을 노출했지만 이정수(교토)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강민수와 중앙 수비 듀오로 계속 나서게 됐다. 골키퍼 장갑은 '거미손' 이운재(수원)가 간다.

한편 북한은 지난 28일 UAE전에 가동했던 멤버들이 그대로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장대세(가와사키)가 왼손으로 출격하는 가운데 홍영조(로스토프)와 문인국이 좌우 날개에서 공격 삼각편대를 형성한다.



(이근호)



(허정무 감독) (김정훈 감독)

남북사령탑 출사표

“반드시 이기겠다”

“이기는 경기를 할 것이고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허정무 한국 대표팀 감독). 내일 경기는 최종예선을 통과하느냐에 관심이 될 수 있어 승점 3점을 꼭 얻겠다(김정훈 북한 대표팀 감독)”

4월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을 치르는 남북 축구대표팀 사령탑이 결전을 하루 앞두고 반드시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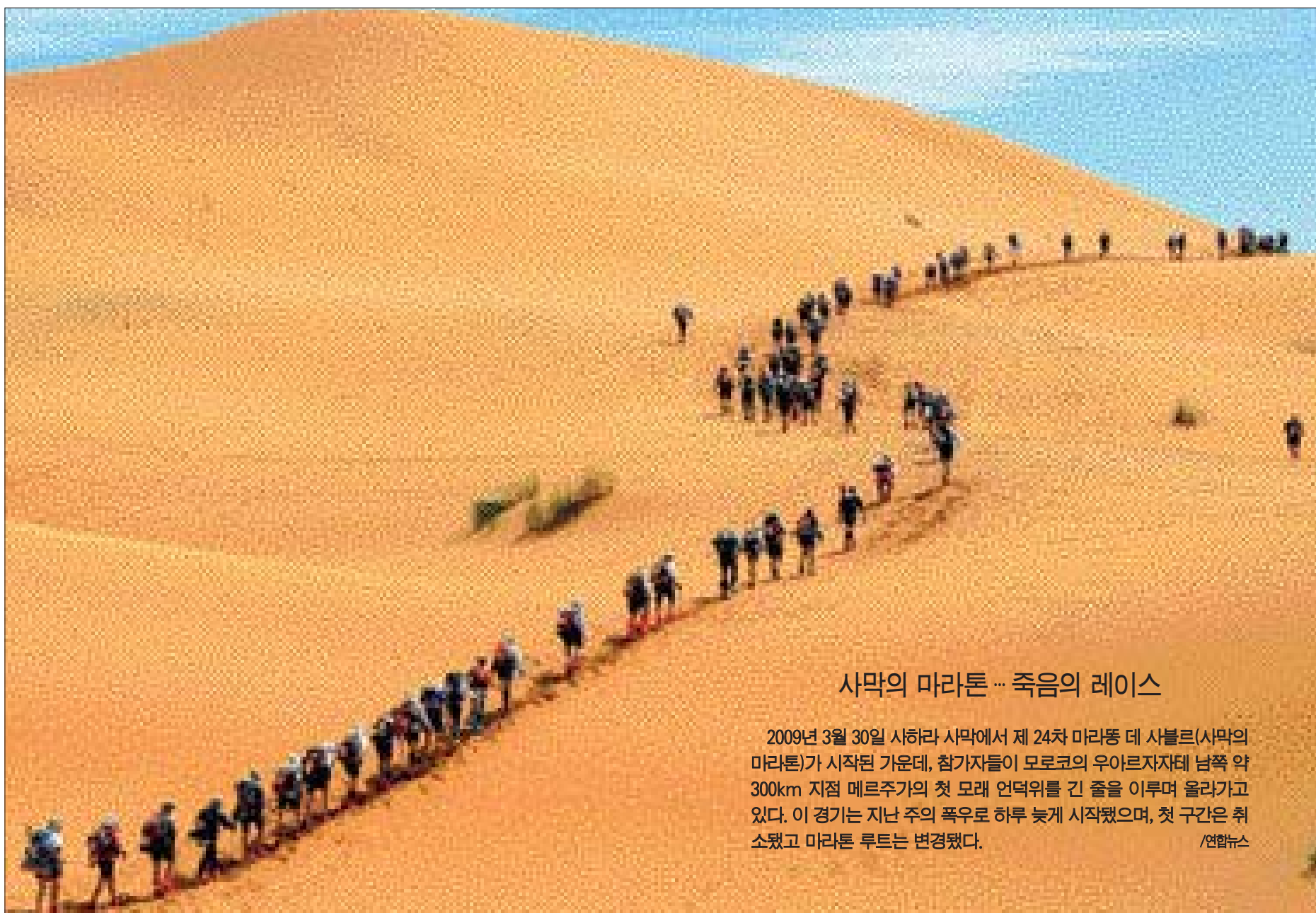
허정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과 김정훈 북한 감독은 31일 오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허정무 감독은 “내일 경기는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중요한 감독이다. 북한이 요즘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도 준비를 잘했고 선수들의 컨디션도 좋다.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허 감독은 이어 “공격진이 이라크와 평가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골 결정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전에서는 꼭 골을 넣도록 하겠다. 박빙의 경기에서도 서두르지 않겠다. 한 골 차 승부가 될 것”이라며 접전을 예상했다.

종아리 타박상을 당한 조원희(위건)와 관련해 “김정우가 경고 누적으로 뛰지 못하고 대신 발탁한 조원희도 종아리가 좋지 않아 북한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다. 대안으로 2, 3명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훈 북한 감독도 결연한 각오를 밝혔다. 김 감독은 “내일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따느냐가 앞으로 최종예선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수들도 잘 알고 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사막의 마라톤... 죽음의 레이스

2009년 3월 30일 사하라 사막에서 제 24차 마라톤 데 사블르(사막의 마라톤)가 시작된 가운데, 참가자들이 모로코의 우아르자지테 남쪽 약 300km 지점 메르주기의 첫 모래 언덕위를 긴 줄을 이루며 올라가고 있다. 이 경기는 지난 주의 폭우로 하루 늦게 시작됐으며, 첫 구간은 취소됐고 마라톤 루트는 변경됐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루키들 지켜봐 달라

프로야구 '새내기'들의 도전이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2009 프로야구 미디어데이 행사에 각 구단을 대표하는 신인 선수 8명이 참가해 신인왕 레이스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자리에는 5억5천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1차 지명료로 두산 유니폼을 입은 투수 성영훈(19)이,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장착한 성영훈은 시범 경기에 6번 등판해 6이닝 무실점으로 1세이브 2홀드를 챙기며 불펜 수업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이날 “1군에서 시즌을 마치고 싶다”고 밝힌 성영훈은 팀 선배 임대훈을 뛰어넘고 싶다. “그래야 내가 게임에 나설 수 있다”고 밝

혀 좌중을 웃기기도 했다.

내야에서는 삼성의 1차 지명 김상수(19)가 신인왕 타이틀에 한발 앞장 서 있다. 46타가 신인왕 타이틀을 이끌고 싶다”고 말했다.

당찬 포부와 달리 안치훈의 시작은 험난할 전망이다. 3루를 맡아 시범경기 12경기에서 나온 안치훈은 41타수 3안타로 타율이 0.073에 불과하다. 실책도 3개를 기록했다. 그러나 안치훈은 수비와 타격 센스를 겸비한 ‘재목’으로 평가 받은 만큼 1군에서 경험을 쌓으며, 신인왕 경쟁을 준비하게 된다.

KIA를 대표한 안치훈(19)은 “명문구단에 입단해 영광이다. 신인다운 패기와 투지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이종범 선배처럼 KIA를 정상으로 이끌고 싶다”고 말했다.

김상수는 “개인 성적보다 팀을 위해 뛰고 싶다. 2루전 3루전 열심히 훑쳐보겠다”면서 “박진만 선배를 이겨보고 싶다”고 프로데뷔를 앞둔 소감을 밝혔다.

KIA를 대표한 안치훈(19)은 “명문구단에 입단해 영광이다. 신인다운 패기와 투지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이종범 선배처럼 KIA를 정상으로 이끌고 싶다”고 말했다.

당찬 포부와 달리 안치훈의 시작은 험난할 전망이다. 3루를 맡아 시범경기 12경기에서 나온 안치훈은 41타수 3안타로 타율이 0.073에 불과하다. 실책도 3개를 기록했다. 그러나 안치훈은 수비와 타격 센스를 겸비한 ‘재목’으로 평가 받은 만큼 1군에서 경험을 쌓으며, 신인왕 경쟁을 준비하게 된다.



KBO- CJ 인터넷 스폰서 조인식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인터넷 기반 사업체인 CJ 인터넷과 3년간 타이틀 후원 계약을 하고 올해 공식 명칭을 “2009 CJ 마구마구 프로야구”로 발표했다.

유영구 KBO 총재와 정영종 CJ 인터넷 대표이사사는 31일 오후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타이틀 스폰서 조인식을 하고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사진)

CJ인터넷은 지난 4년간 스폰서를 맡았던 삼성전자를 대신해 앞으로 3년간 프로야구 공식 타이틀을 후원하고 첫해 35억원을 KBO에 지원한다. 2010년과 2011년 지원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KIA 안치훈·두산 성영훈·삼성 김상수

올시즌 신인왕타이틀 놓고 맹활약 예고